

“밥은 먹고 다니느냐?” 어머니의 위안이 그림다

나의 밥 이야기

김석신 지음

영화 ‘살인의 추억’을 떠올려 보자. 형사 역을 맡은 송강호는 유력한 용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돌연 그에게 “밥은 먹고 다니느냐?”고 묻는다. 이 대사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해준다. 용의자 신분으로 겪은 고초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배우가 직접 밝힌 ‘이런 짓을 하고도 밥이 넘어가느냐’는 질책을 느껴진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밥은 먹었니”라는 말을 형사가 하는 것과 늦은 밤 귀가한 자녀에게 어머니가 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석신 교수의 ‘나의 밥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인간의 탄생과 삶, 사후까지도 중요한 밥 ‘나눔’의 윤리 아닌 ‘제품’이 된 현실 안타까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인간과 밥의 관계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그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하루 세 끼를 한해 365일 먹는다면 우리는 일생동안 8만7600끼를 먹는다. 한 끼에 5000원이 든다면 약 4억4000만원의 돈을 먹는데 쓰는 셈이다.

저자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는 태어나 밥을 먹으며 가족의 일원이 된다.

과거 산모의 산고기 시작되면 뱃속에 삼신상을 차리고 쌀과 정화수 세 그릇을 올려 손상을 기원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쌀과 정화수로 쌀밥과 미역국을 각각 세 그릇씩 지어 올렸다. 또 백일이 되면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백일상을 차린다.

죽음의 순간에도 밥은 우리와 함께한다. 흔히 말하는 ‘곡기’를 끊으면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것이며, 상가에서는 음식을 서로 나눈다. 또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기일에 맞춰 제사 음식을 차려 놓는다.

특히 저자는 ‘음식 윤리’를 강조한다. ‘생명’ 그 자체였던 음식이 현대에 들어 단순한 ‘제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인간의 생

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쫓던 음식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가고 있다. 또 음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면서 ‘음식윤리’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음식윤리는 ‘나눔’에서 비롯된다. 대량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를 과다 살포하는 농업,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사육하고 도살되는 축산업 등이 음식을 먹는 사람과 이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이 때문에 늦은 밤, “밥은 먹고 다니느냐”는 어머니의 응성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밥의 위안’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밖에 정치인들이 유세할 때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이유, 여자와 남자의 식성 차이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명과 음식, 공동체와 음식, 돈과 음식 등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궁리·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책 읽기

정과리 외 ‘감염병과 인문학’ (도서출판 강 권)

감염병은 세계화의 시대에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침입한다. 인체를 단시간에 죽임으로 이끄는 감염병. 에볼라의 위기에 노출된 현재, 시시각각으로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확산되어 간다.

아직 우리는 아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11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주지역에서 발생되어 1만 마리의 오리 가 살처분됐다. 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AI는 이제 농가의 일상화된 동물감염병이 되었다. 감염병의 속주는 거의 동물이다. 치명적인 병 전연두는 동물의 병이 사람의 병으로 진화한 것인데 동물 바이러스는 언제 인간에게 침입할 지 알 수 없는 일. 동물 바이러스의 변종이 두려운 시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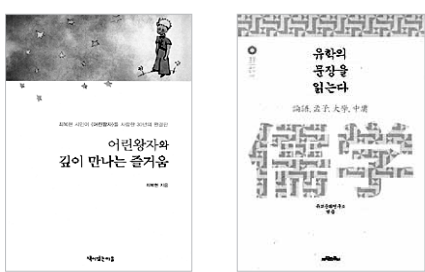
라이베리아의 과일박쥐에서 감염된 희생자들은 지금까지 라이베리아에서만 4300여명이 감염돼 2500여명이 숨졌다. 21세기의 흑사병이라 불릴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미 40여년 전에 발견되었지만 가난한 아프리카의 고통이었다. 아프리카 환자들은 추상적인 통계나 수치로 처리된 반면, 유럽으로의 감염이 시작되자 선진국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5개국 정상이 지난 15일 긴급화상회의를 열었고 에볼라 확산 억제 비용으로 응급재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잠재적 불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새로 나온 책

▲어린왕자와 깊이 만나는 즐거움=20대 나이에 어린왕자를 처음으로 만난 최복현 시인이 30여 년간 수없이 나누었던 어린왕자와의 대화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어린왕자의 삶이 모든 이들의 삶을 대변한다는 생각에서 어린왕자에 관한 아름다운 글을 여러 권 썼다. 오랫동안 수없이 나누었던 어린왕자와의 대화를 제대로 마무리한 이 책은 어린왕자와 생텍쥐페리에 관해 시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낸 30여 년의 완결판이다.

▲책이있는 마을=1만6800원 <책이있는 마을>은 유학의 고전인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사사 안에 담긴 살아 있는 유학의 문장들을 추려내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들로 다시 풀어냈다. 학문·치세·정치·인성·인류·의리·사랑·수양·도덕 등 다양한 삶의 키워드들이 진솔한 유학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



는 ‘전통의 향기’라는 염서글들을 다듬어 엮은 책이다. <사람의 무늬·1만5000원>

▲모모세대가 물려온다=모모세대란 ‘모어 모바일(MORE MOBILE)’ 세대의 줄임말로, 모바일 환경이 더욱 강화될 가까운 미래를 살아갈 지금의 10대를 지칭하는 용어다. 책에서는 10대의 집단적 특성을 세대 차원에서 분석하고, 트렌드를 이끌어갈 주제인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모모세대’로 부른다. 그들은 일상을 독창적인 콘텐츠로 만들어낼 줄 아는 탁월한 생산자이며 껌껌하고 똑똑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흐름출판·1만5000원>



▲절두산 부활의 집=지난 7월 향년 67세로 타계한 전 한국시인협회 회장 김종철 시인의 유고시집.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2주일 전인 6월 22일 연세 암병동에서 마지막까지 다듬었던 유고시 ‘절두산 부활의 집’을 비롯해 처음 선보이는 미발표 유고시 37편과 30년 문학지 등에 발표했지만 시집으로 묶지 못한 시편들 등 총 80편의 시가 실려 있다. 시인은 작고하기 두 주 전까지 돌팔매의 힘을 빌려 미발표작을 포함한 시 한 편 한 편을 정리했다. <문학세계사·1만2000원>

▲석기시대 경제학=저자인 마셜 살린스는 수렵채집 경제가 ‘생계경제’를 대표

한다고 보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수렵채집 사회야말로 원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였음을 증명하고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려 한다. 책은 현재 한국 사회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빈곤, 불평등, 폭력과 전쟁, 환경문제의 극복을 고민하는 광범위한 독자에게 풍부한 실증적 자료와 중대한 지적 비전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울아카데미·4만3000원>

▲알아야 제맛인 우리 먹거리=2014년 9월 현재까지 등록된 지리적표시 상품 80여종이 총망라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리적표시 총람서’. 2012년 출판된 ‘대한민국 지리표시물 - 지리적표시 농림수축산물 총람서’의 개정판이다.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을 바탕으로 그 원산지과 전래역사, 식품 효능 및 요리법 등을 맛깔나게 기술했다. 160여 곳, 80여 종의 대한민국 지리적표시 농수축산품들이 빠짐없이 소개돼 있다. <고대·2만2000원>

어린이 책

▲재난에서 살아남기(인재편)=지하철 사고, 건물 붕괴와 도시 재난 사고, 선박 사고,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총 11가지 인적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고 그 원리를 설명해준다.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체험관 정보까지 함께 수록됐다. <어문학사·1만3000원>



▲꿈 좀 때지 뭐?=제3회 정재봉 문학상 대상 수상작 ‘꿈 좀 때지 뭐’의 동화 작가 양인자가 실려낸 인물들과 그들의 당돌한 이야기 네 편을 담았다. 영암에서 태어나 전남

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광주대 문예창작과 대학원에서 동화를 공부한 저자는 어른보다 나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표현했다. <샘터·1만1000원>

▲내 꿈은 누가 정해줘?=자신이 좋아하는 꿈과 엄마가 바라는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영이를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되짚어보는 동화. 동화는 어린이에게 달콤한 위안을 주는 대신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그 내면이 감춰진 사람을 깨닫고,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꿈꾸라고 이야기하

다. <풀빛미디어·1만1원>

▲말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스피치 교실=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말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소리 내는 연습, 호흡 연습, 복식 호흡, 발성 연습, 소리 크기 연습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다듬는 법을 배운다. 말을 잘해야 하는 여러 직업 체험을 통해 상황에 어울리는 말하기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고래가숨쉬는도서관·1만3000원>

‘유동하는 공포’ 감염병에 대한 성찰

영화 ‘감기’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던 때가 떠오른다. 실제 감염병이 돌면, 고담처럼 떠돌게 될 감염병의 경로라든지 격리, 폐쇄는 치명적인 공포가 될 것이다. 국가는 언제고, 감염병에 걸린 지역이나 공동체를 격리조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으며 필요할 때는 통치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동하는 공포, 감염병 중 신종플루로 인한 기억은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다. 백신치료제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다. 현재 그 기억은 희미해져있다. 과거의 감염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염병, 동물 바이러스가 인체를 숙주로 번식한다는 사실은 다가올 재앙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이후 곁에 둔 ‘감염병과 인문학’을 꺼내 들춰본다. 아직, 감염병이 주변에서 발발하지 않았으므로 예방과 대처에 관한 논문에 눈길을 오래 둔다. ‘감염병의 철학적 의미’, ‘감염병과 인간의 상호작용’, ‘한국 전염병사 개관’, ‘박탈당한 인간과 세상, 공동체 밖의 삶’ 등을 제목으로 한 13인의 글이 실려 있다.

“병에 들러붙은 편견들은 사실 죽음의 공포의 변형적 양태”에 밑줄을 다시 긋고, “감염병에 대한 사유가 깊어질 때 그 고민이 공동체의 존속과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고민”이라는 곳에 시선을 둔다. “감염병을 배워야 한다”에 붉은 줄을 긋는다.

다가올 감염병은 무의미한 상상이 아니다. 예견된 공포에 대한 불안, 그 예방과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자체와 국가는 좀더 정밀한 질병관리체제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감염병이 현실적으로 추체되어야 할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이해와 예방이 시급하다. 감염병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공중보건적 지식이 적급 필요한 시기다.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TV조선 드라마 스페셜

최고의 결혼

박시연 | 배수빈 | 노민우 | 엄현경 9월 27일 [토] 밤 8시 30분 첫방송

제작 C-STORY DRAMA PRODUCTION